

담배에 관해...

나는 담배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입장도 아닙니다. 단지, 담배에 관해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모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상대의 기분을 조금만이라도 고려한다면, 이런 대립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에 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라고 하는, 흡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의 여러곳에서는 어디든지 흡연실등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도(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때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나쁜 매너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관해서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람(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런 대립을 일으키는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사회라고 하는것은 함께(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턴가 담배는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기호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관해서의 대립은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담배의 위험한 영향에 관해서는 꼭 알아야합니다. 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자에게도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는 무시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담배에 관한 대립의 결론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